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 문제지

# 국어 영역

1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비틀거려도 계속 또박또박 똑바르게 걸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디지털 매체의 확산은 정보 탐색을 위한 읽기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의 독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선택하여 읽었다면, 현대의 독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형식에 부합하는 자료를 직접 생성하여 읽는 주체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독자는 자신의 지식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는 학습 데이터 내의 편견을 투영하거나, 정보의 조합 과정에서 원래의 맥락을 훼손하고 출처를 왜곡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는 독자의 신념이나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선별되었을 수 있다. 이는 독자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게 만드는 ㉠ 인지적 편향을 심화시키게 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에코체임버 효과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성과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동반한 ‘깊이 읽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깊이 읽기는 단순히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제시된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편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성찰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읽기는 단일 텍스트의 분석을 넘어 여러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지향한다. 인공지능이 제공한 요약 정보는 효율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 간의 논리적 연결 고리가 생략될 수 있고 미묘한 맥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전이나 상충하는 다른 자료를 추적하여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현대의 독서는 기술의 편의성에 매몰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연결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지적 도약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독자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는 독자의 시간적 비용을 줄여주지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을 오인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요약은 효율적이지만,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재구성이 필요하다.
- ④ 과거의 독자가 글을 수동적으로 골라서 읽는 주체라면, 현대의 독자는 글을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주체이다.
- ⑤ 독자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을 통해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2. 윗글의 ㉠과 ㉡의 관계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선행되어야만 ㉡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 ② ㉠이 심화될수록 ㉡을 통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 ③ 디지털 환경은 ㉠의 정확도를 높여 ㉡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읽기 단계로 독자를 유인한다.
- ④ ㉡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이 강화되어 정보 왜곡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 ⑤ ㉠과 ㉡은 독립적인 능력이므로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에서는 ㉠의 발달을 우선시해야 한다.

3. 다음은 학생의 독서 메모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는 인공지능으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생성하여 다음 단계에 따라 읽었다.

- ㉠ 단계 1: 인공지능이 생성한 보고서의 제목과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며 전체적인 인상을 파악하였다.
- ㉡ 단계 2: 보고서 내용 중 특정 관점이 강조된 점을 발견하여, 원전을 직접 찾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대조하였다.
- ㉢ 단계 3: 상충하는 관점의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하여 자료들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 ① ㉠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맞춤형 자료를 훑어볼 때, 독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군.
- ② ㉡에서 원전을 찾아 대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에서 상충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에코체임버 효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와 ㉢에서 정보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자료들의 관점과 비교하는 것은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에 해당하겠군.
- ⑤ ㉠에서 ㉢로 나아가는 과정은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되, 과학 기술의 편의성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전략이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국 시대의 빈번한 전쟁과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묵가(墨家)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하는가”를 정치와 윤리 판단의 기준으로 세웠다. 그들의 주장은 ‘겸애(兼愛), 비공(非攻), 절용(節用), 상현(尙賢)’으로 요약된다. 겸애는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고 서로를 이롭게 하라는 요구이고, 비공은 공격 전쟁의 부당성을 ㉠ 들며 방어만을 허용한다는 원칙이다. 절용은 사치와 과시를 공공의 낭비로 보고 억제하자는 주장, 상현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공로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자는 인재 등용에서의 원칙이다.

묵가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방식은 효과에 민감하다. 그들은 논증의 기준으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옛 성왕의 가르침에 ㉡ 알맞은가,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의 ㉢ 삼표(三表)를 제시하며, 정책과 행위가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졌다. 이런 실용주의의 바탕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 하늘은 백성의 이익을 원한다는 신념 아래, 하늘과 귀신을 인정하는 것도 공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 이해했다. 즉, 묵가의 사상에서는 당대의 형이상학마저 불가사의한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미신적 수단이 아닌, 공익 증대를 떠받치는 근거로 쓰인다.

정치적으로 묵가가 상벌을 분명히 하는 중앙집권적 질서를 지지하는 태도의 목적은 군주의 영광이 아닌 민생의 안정에 있었다. 인재 등용 원칙과 등용된 이가 윗사람의 올바른 명령에 맞추는 상동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능력에 따른 포상과 엄정한 처벌로 규칙을 실효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묵가는 공격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방어 기술과 병기 운용에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난공불락의 성채를 설계하고 공성·수성 기술을 체계화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생활 태도에서도 묵가는 검약과 실용을 미덕으로 삼아, 장례·음악·장식 등의 과시적 소비를 비판하고, 생산과 치민에 직결되는 학문과 기술을 중시했다.

물론 묵가의 사상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유가는 “사람은 친친(親親)에서 인(仁)으로 넓혀 간다”며 겸애를 ‘친소의 질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고, 상동의 강조가 다양성과 자발성을 억압할 위험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묵가의 사상은 능력주의, 반(反)사치, 전쟁 억제, 정책 효과 평가 같은 현대적 화두와 닿아 있다. 무엇보다 “도덕의 가치는 실제 효용으로 검증된다.”는 묵가의 태도는, 규범을 관념이 아니라 공공의 삶을 증진하는 도구로 보게 만든다. 이 점에서 묵가는 공익을 ㉣ 쫓는 윤리학으로 평가된다.

(나)

상앙과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는 명문화된 규범, 통치 기술, 권위의 결합을 사상의 핵심으로 한다. 법가는 인간을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도덕적 선의에 기대어 질서를 수립하기보단, 제도와 규칙, 그리고 신상필벌의 확실한 집행으로 행동을 설계한다. 또한 농업과 군공을 국가 존속의 ㉤ 바탕으로 보고, 공로와 성과에 따라 서훈과 승진이 결정되는 능력주의를 제도화하였다. 목표는 국가 질서의 안정과 군주의 권력 유지

이기에, 전쟁도 필요하다면 수단이 되며 절약 또한 도덕이라기보다 통치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편 서구의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합치하는 삶과 덕의 일치를 윤리의 중심에 두었다. 정념을 통제하여 평정을 얻고, 이성적 존재로서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 본다. 법과 의무는 보편 이성의 표현이며, 신분과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가 요청된다. 또한 절제와 검약은 덕의 훈련이고 운명 앞에서 내적 판단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현자의 과제이다. 법가와 달리 스토아 학파의 목표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덕에 근거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평정인 것이다.

법가는 질서와 권력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외적 상태를, 스토아는 덕의 완성과 내적 평정을 지향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도 상이하다. 법가는 인간의 이익추구성에 대한 냉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제도적 통제를 설계하고, 스토아는 우주적 이성과 자연 법칙에의 합치를 도덕의 근거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법가는 엄격한 형벌과 상벌, 행정 기술과 정보 비대칭의 관리로 효과를 내고, 스토아 학파는 개인 수양과 이성적 성찰, 습관적 훈련을 통해 정념을 길들이고자 한다.

타자에 대한 태도에서 법가는 법 앞의 평등을 말하지만 박애는 목표가 아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인간을 이성적 동족으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전쟁과 폭력에 관해 스토아 학파는 법가와 달리 원칙적으로 폭력의 찬미를 경계하면서 주로 규범적 조언에 머문다. 사치에 대한 태도는 두 사상이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법가의 검약은 통치 효율을 위한 규제이고, 스토아의 검약은 덕의 훈련이다. 유사한 행동 규범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의미를 갖는 셈이다.

㉦ 이렇듯 두 사상을 비교해 보면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두 학파 모두 사치를 경계하고 절제를 미덕으로 본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법가는 능력 중심 등용과 규칙, 질서를 중시하며, 스토아 학파는 보편법과 의무의 감각을 통해 ‘규칙을 통한 자유’를 모색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이론의 발전 양상을, (나)는 특정 이론의 의의와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이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나)는 특정 문제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이론에 대한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이론이 현실에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이론들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당한 규범에 따른 올바른 명령을 통해 자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경험적 근거가 아닌 하늘의 뜻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③ 정당성의 근거와 실질적인 규범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미신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공적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옛 규범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묵가의 입장에서는 공격 전쟁을 반대하기에 침략을 거부하고 소극적인 병기 운용을 추구하겠군.
- ② 유가의 입장에서는 친소를 가리지 않는 상호 이익 추구가 질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겠군.
- ③ 유가의 입장에서는 묵가의 윗사람의 올바른 명령에 따르는 체계가 다양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겠군.
- ④ 법가의 입장에서는 묵가와 마찬가지로 공로와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에 따른 인재 등용을 추구하겠군.
- ⑤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힘이 아닌 개인의 덕 수양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추구하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가 사상은 스토아 학파와 달리 습관적인 훈련을 통한 질서 수립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② 법가 사상은 스토아 학파와 달리 국가적 질서와 권력의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③ 스토아 학파는 법가 사상과 달리 법 앞의 평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④ 스토아 학파는 법가 사상과 달리 친소에 따른 질서 수립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⑤ 스토아 학파는 법가 사상과 달리 도덕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Y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도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최근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시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A 의원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되,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명확한 법규와 강력한 단속으로 질서를 세우고, 위반자에게는 엄벌을 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의원은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내적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 ① A 의원의 주장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묵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와 유사하군.
- ② B 의원의 입장은 명확한 규칙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려는 점에서 법가의 통제 중심 통치관과 유사하군.
- ③ C 의원의 제안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스토아 학파의 덕 수양의 목적과 일치하는군.
- ④ 묵가의 관점은 B 의원의 방식은 포상 제도가 부족하여 실질적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우려하겠군.
- ⑤ 스토아 학파는 A 의원의 접근은 삶과 덕의 일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도덕적 완성의 본질을 놓친다고 평가하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충(補充)하며
- ② ㉣: 합당(合當)한가
- ③ ㉤: 지향(志向)하는
- ④ ㉢: 기반(基盤)으로
- ⑤ ㉣: 간주(看做)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단순한 생태 보전을 넘어, 국토 전반의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멸종위기 생물의 정의는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멸종의 위험이 있는 종'이며, 이들은 종은 위협 요인의 심각성이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I급과 II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야생생물보호법 제정 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을 둘러싼 관계 법령들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핵심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동물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하위 법령이 적용 주체 및 보호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가령 멸종위기종이 하천이나 바다에 분포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인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 법령이, 생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일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로 관할한다. 그러나 법령 간 경합이 일어난다면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법령 역시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원칙적으로 포획·채취와 포획 도구의 소지, 서식 환경 훼손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입·반출입에 대해서도 「관세법」 「대외무역법」과 연계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도 포획·채취가 엄격히 제한된다. I급과 II급에 관한 처벌은 개인이나 기관이 연구 또는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정의하고 수출·수입 시 환경부 허가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인공증식·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몰수 조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몰수된 개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 관할의 보전기관으로 이전되거나 복원 사업에 활용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야생동물 보호 체계가 교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시된 지침을 올바르게 따라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멧돼지, 까마귀 등 특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지자체장은 해당 동물의 번식지·서식지 관리와 포획 허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는 사실상 허가가 극도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더라도, 멸종위기종 포획은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울타리와 망 등의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충돌하면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포획이 불가피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제한적 포획 허가를 내주도록 제한한다. 특히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법률 간 충돌이 없도록 환경부가 제정한 시행규칙과 지침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0. 밑글에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제도를 검토한 뒤, 다른 나라 법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개념과 중요성을 밝히고, 관련 부처별 관리 업무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여러 관계 법령 간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을 소개한 뒤, 각 방법의 기술적 유용성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 제정의 전반적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의 포획 및 반출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② 천연기념물 해양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문화재청 소관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③ 2024년 이후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이전과는 달리 관련 허가를 취득한다면 불법 증식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 ④ 피해방지단이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승인 없이 포획할 시 법령에 위반된다.
- ⑤ 하나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하여 여러 법령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하위 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환경부가 추가로 관리 조건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개인이 서식지 복원의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③ 특정 멸종위기 생물이 재산 피해를 입힐 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역이 충돌할 시 서식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⑤ 멸종위기 생물이 몰수된다면 환경부 관할의 보전기관으로 이전되어 관리 및 보전이 진행된다.

13.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지자체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흰목물떼새가 민가 근처 하천 독에서 번식 중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기존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포획에 더해 “흰목물떼새도 공격적이고, 농작물을 훔쳐 먹어 불편하다”며 포획 요청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A 지자체장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포획 불허 방침을 알렸다. 대신 하천 인근에 피해방지단을 통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으나, 계획된 설치 구역은 흰목물떼새의 구역 일부를 포함하였다.

- ① A 지자체장은 흰목물떼새에 대하여 야생생물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겠군.
- ② 흰목물떼새를 피해방지단을 투입하여 포획하지 않은 것은 흰목물떼새가 충분히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겠군.
- ③ A 지자체가 울타리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겠군.
- ④ A 지자체는 흰목물떼새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겠군.
- ⑤ 흰목물떼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해당 종의 관리와 처치에 대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전자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점차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전력 효율이 낮고 전압 조절 시 신호의 분실이 발생하였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을 대체한 PWM 제어 방식은 신호의 전압을 연속적으로 인가하는 대신, 켜짐과 꺼짐으로만 구성된 펄스 신호를 사용한다. PWM을 활용한 방식은 겉보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처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짧은 간격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압을 연속적으로 ① 내보내지 않음에도, 특정 전압을 계속해서 인가하는 경우와 ② 낮은 효과를 보인다.

PWM 신호는 일정한 주기로 ③ 되풀이되며, 1초 동안 몇번의 펄스가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주파수이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간의 눈이나 기기는 신호를 개별 펄스가 아닌 연속적 흐름처럼 인식하기 쉬워지고, 주파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깜빡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신호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듀티 사이클이다. 듀티 사이클은 펄스의 폭이며 한 주기에서 신호가 켜진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전체 주기가 1밀리초라고 가정할 때 듀티 사이클이 40%라면 펄스는 0.4밀리초 동안 켜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듀티 사이클을 조절함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로 PWM 제어 방식은 펄스의 반복 속도와 폭을 설정해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고도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전압을 연속적으로 낮추거나 상승시켜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지만, PWM 제어 방식은 듀티 사이클을 통해 전압의 평균값을 결정하여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④ 쓰면서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얻는다. 듀티 사이클을 절반 정도로 설정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중간 밝기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LED가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며 주파수, 즉 펄스의 반복 속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한다면 인간의 눈에는 전구가 깜빡임 없이 일정한 밝기로 보이게 된다. 또한 개별 펄스의 켜짐과 꺼짐 구간은 그 자체로 에너지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기에 열이나 잡음과 같은 부가적 손실이 줄어들기도 한다.

PWM 방식은 디지털 펄스를 통해 아날로그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다. 물론 펄스의 반복 속도가 ⑤ 지나치게 빠른 경우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하거나 전자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느린 반복 속도로 설정하면 LED가 깜박이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PWM이 목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펄스의 폭과 반복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압을 연속적으로 낮추어 구동하는 기존 방식은 의도하지 않은 신호 손실을 유발하기 쉽다.
- ②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방식은 아날로그 제어 방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 ③ 전압이 느리게 전환되는 경우는 빠른 경우보다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한다.
- ④ 신호가 꺼져 있는 동안 회로로 흐르는 전류가 현저히 줄어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하다.
- ⑤ 켜짐과 꺼짐을 통해 전압의 연속적 조절 없이 LED의 점진적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

15. PWM 제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압이 인가되는 구간의 비율이 커질수록 실제 평균 전압은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전력 소모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신호가 충분히 빠르게 반복되면 연속적인 전압 인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깜빡임과 진동이 심화된다.
- ③ 꺼짐 구간의 비율이 커질수록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줄어들어 각 펄스 사이에 발생하는 열 충격이 커진다.
- ④ 주파수를 조절하여 높은 출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나 높은 주파수는 펄스에 인가되는 전압의 총량을 증가시킨다.
- ⑤ 듀티 사이클을 충분히 크게 하더라도 펄스의 주기가 반복되는 속도를 높일 수 없다.

16.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터를 PWM 방식으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은 설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동력이 전달되는 길이의 비율에 비례하여 모터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 펄스 반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진동과 소음이 가중된다.

- ① 듀티 사이클을 높인다면 모터가 더 높은 평균 동력을 전달받으므로 회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 ② 펄스의 반복 속도를 높인다면 동력이 모터에 전달되는 빈도가 높아져 일정한 동력 전달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③ 펄스의 주파수를 낮추면 동력이 모터에 전달되는 빈도가 줄어들어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④ 펄스의 주기를 짧게 설정하면 모터에 전달되는 평균 동력의 크기를 높일 수 있다.
- ⑤ 펄스의 반복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신호의 변환이 모터 구동에 그대로 드러나 진동과 소음이 가중된다.

17.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출(放出)하지                      ② ㉡: 동일(同一)한
- ③ ㉢: 반복(反復)되며                      ④ ㉣: 사용(使用)한다
- ⑤ ㉤: 과도(過度)하게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한담이 역모를 일으키자, 수련 중이던 유충렬은 이에 맞선다. 남경에 도착한 유충렬은 정한담과 승부를 벌인다.

도사가 적진에서 충렬에게 한담의 투구가 깨어진 것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징을 쳐 거둠에, 한담의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

더니 징을 쳐 거둠에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놓고 기운을 수습하지 못하거늘. 좌우 구하니 겨우 정신을 차려 앉으며 왈, “선생은 어찌 알고 소장을 불렀나이까?”

도사 왈, “적장의 칼 끝에 장군의 투구 깨어지기로 만분 위태하여 불렀노라.”

한담이 대경하여 머리를 만져보니 투구 없는지라 더욱 놀라 왈, “적장은 일정 천신이요, 사람은 아니로다. 십년을 공부하여 사람은 커니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법이 많았더니, 마룡과 최일귀 죽음을 조심하여 십 년 배운 법을 오늘날 모두 다 베풀어 적장을 잡으려 하더니 잡기는 새로이 기운이 쇠진하여 거의 죽게 되었소 ㉠천행으로 선생의 힘을 입어 목숨이 살았으나 천만 가지로 생각하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선생은 깊이 생각하옵소서.”

도사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이윽히 생각하다가 군중에 전령하여 진문을 굳이 닫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을 잡으려 할진대 인력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군장 기계를 모아 여차여차하였다가 적장을 유인하여 진중에 들게 되면 제 비록 천신이라도 피할 길이 없으리라.”

한담이 대희하여 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제하고 수일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왈,

㉡“네 한갓 혈기만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두려워할 만하구나.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이때 원수 의기양양하여 진전에 횡행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출마하여 일합이 못하여 거의 잡게 되었더니, 적진이 또한 징을 쳐 거두거늘 다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제,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 없고 음풍이 소소하며, 한설이 분분한데 지척을 모를레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피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곧 숨이 끊어지는구나. 원수 대경하여 신화경을 띄어 놓고 둔갑장신하여 일신을 감추고 안순법을 베풀어 진중을 살펴보니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검극은 삼대같이 벌였으며 사해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사석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 하는지라.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 신화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며 풍백을 바빠 불러 운무를 쓸어 버리더라.

(중략)

이때 정한담이 도사의 피를 듣고 적장을 유인하여 함정에 넣었더니 죽기는 고사하고 삼군 억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장대에 달려들어 한담의 혼백 붙인 위인을 베이고 후군을 지치다가 황태후를 데려가는 양을 보고 냇을 잃어 도사에게 들어가 여쭙오되, “충렬은 일정 천신이라 이제는 백계무책이오니 선생은 어찌 하오리까?”

도사 대경망극하여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한 피를 생각하고 한담을 불러 왈,

“적장 유충렬은 거거년전에 연경으로 귀양간 유심의 아들이라 하니 이제 군사를 급히 재촉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면 제 아무리 충신이나 임금만 생각하고 제

아비를 생각지 아니하라.”

한담이 이 말을 듣고 대희하여 군중에 전령하되 날랜 군사 십여 명을 조발하여 유주부를 빨리 나입하라고 분부하니라.

각설 이때 유주부가 북방 극한지지에 누년 고생함에 위인이 보잘 것이 없고, 남경에 난리 났단 말을 듣고 주야 근심하며, 행여 천자 죽을까 염려하여 동지장야 길고 긴 밤에 촛불만 도도 켜고 빌며 왈,

“명천이 감동하사 우리 천자 살릴진대, 내 아들 충렬이 살았거든 남경을 구원하고 제 아버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듯 정성을 드리더니 뜻밖에 한때 군사 달려들어 유주부를 잡아내어 수레 위에 높이 싣고 불원천리 재촉커늘 유주부 정신 없이 인사를 놓았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생각하되,

“이제는 하릴없이 죽는도다. 우리 천자 승전하였으면 날 잡아 오라기 만무하다. 일정 정한담이 역적 되어 천자를 죽이고 나도 또한 죽이려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 청천 일월도 무심하고 형산 신령도 못 믿겠다. 내 아들 충렬이도 정녕 죽었구나. 살았으면 어디 가서 아버 원수 못 갚는가.”

이렇듯이 슬피 울 제 군사들도 낙루하더라.

여러 날만에 적진 중에 득달하니 이때 정한담이 용상에 높이 앉아 곤룡포를 정히 입고 백관이 시위하여 유심을 잡아다가 계하에 엎지르고 달래어 하는 말이,

“그대 마음이 하 고집하기로 만 리 연경에 수년을 고생하니 내 마음이 불안한지라. 이제는 짐이 천자되어 백관을 거느렸더니 그대 아들이 아직 미거하여 천위를 모르고 죽은 명제를 살리려고 우리 군사를 침노하니, 죄상을 논지컨대 진작 죽일 것이로되 그대를 생각하여 아직 살려 두었더니 종시 항복지 아니하노라. ㉠ 그대를 데려다가 자식에게 편지나 하여 부자 함께 만나, 나를 도우면 고관대작은 원대로 할 것이니 부디 사양치 말라.”

유주부 이 말을 듣고 분심이 차올라 눈을 부릅뜨고 쭈그러 앉으며 왈,

“네 이놈 정한담아. 천지도 무섭잖고 일월도 두렵지 아니하냐.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이 설혹 있은들 우리 천자를 모시고 너같은 역적 놈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버 무슨 일로 성군을 저버리고 역적을 도우라 하며, 내 자식은 새로이 광대한 천지 간이 삼 척 동자도 네 고기를 먹고자 하노라. ㉡ 하물며 내 아들이 옥황이 점지하사 남경을 도우라 하였으니 만고역적 너같은 놈을 섬길 듯 하나.”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상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한담’은 ‘도사’에게 자신을 귀환시킨 이유를 물었다.
- ② ‘도사’는 ‘정한담’에게 충렬의 내력을 이유로 들어 계책을 제안했다.
- ③ ‘유충렬’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정한담’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 ④ ‘유심’은 들이닥친 군사를 보며 ‘충렬’의 사망을 예감했다.
- ⑤ ‘정한담’은 ‘유심’에게 유심을 생각하여 충렬을 살려 두었다고 말했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적의 강함을 이유로 계책을 세울 것을, ㉡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제안하는 말이다.
- ② ㉠과 ㉡는 인물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재촉하는 말이다.
- ③ ㉠은 상대를 인정하며 자신과 결판을 낼 것을, ㉡는 초월적 존재를 이유로 들어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전하는 말이다.
- ④ ㉠은 주어질 보상을 들며 상대를 회유하는 말이며, ㉡는 상대를 비난하며 회유를 거절하는 말이다.
- ⑤ ㉠은 상대방의 공을 치하하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말이며, ㉡는 상대방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은 천상에서 내려온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적대자의 전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적대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주인공과 전투한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는 그를 구제하거나 상대를 제압할 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도사’가 ‘한담’의 투구가 깨진 것을 보고 ‘징을 쳐’ 본진에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적대자를 구제하는 조력자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원수’가 적진에 달려들자 안개가 ‘사면에 가득’해지고 ‘장창검극’이 ‘삼대같이 벌’어진 것에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력자의 계책을 알 수 있겠군.
- ③ ‘도사’가 한담에게 ‘적장’이 ‘유심의 아들’이므로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는 것에서, 상대를 제압할 조력자의 계책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군.
- ④ ‘유주부’가 ‘군사’에게 잡혀서 ‘수레 위에’ 실린 후 ‘적진 중에 득달’한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이 실행되는 중임을 알 수 있군.
- ⑤ ‘정한담’이 ‘곤룡포를 정히 입’은 후 ‘유심을 잡아다가’ 달래어 그를 회유하는 것에서, 조력자의 계책을 따라 행동하는 적대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 끝에 ㉠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 추회: 지난 일을 떠올림

(다)

웬일인지 혜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 어느 때보다도 달라 요새는 한 장의 편지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적 생활이 어디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합니다.

㉡ 문학의 말씀도 하였으나 제게는 문학보다 더 근본적인 생각이 요새 마음을 활취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생애의 여간 심상한 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허감이 더욱 뼈를 깎습니다. 단순히 의지할 애정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간적인 괴로움이요 ㉢ 허무감인 듯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 극히 쉬운 노릇이 됐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언제나 그것을 조용히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고 식욕도 점점 줄어들면서 의기가 아주 저악(阻惡)해졌습니다. 이노우에의 연주를 들으려 전 토요일에 떠나려고 버르다가 갑자기 시들해져서 그만두었습니다. 형의 말씀따라나 나이를 먹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아주 늙은 것 같습니다. ㉣ 꿈의 한계가 점점 줄어가고 죄어감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에 몸부림을 치고도 싶습니다. 앞으로의 반생이 얼마나 생광(生光)이 있겠습니까. 초조와 낙망이 계속되다가는 냉정한 최후적인 절박함이 솟군 합니다. 생애의 커다란 변화기 — 라느니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문학의 플랜을 이것저것 세워 보다가도 별안간 그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되면 그만 의기가 잦아들곤 합니다. 물론 이런 심경이 차차 변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요 — ㉤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는지요.

극히 유물적인 인간의 일이오니 생활의 조건이 달라지면 괴롭도 또한 극복될는지 모르겠사오나 이렇게 막다른계까지 생각해 본 적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절박감이 얼른 한때의 악몽처럼 지나가기를 한편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내온 일생을 돌아다보고 참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사람의 욕망같이 어느 때까지 창창하고 누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이렇게 두서없는 생각이 요새는 자꾸만 마음을 괴롭힙니다. 정 답답해지면 바람 쏘이러 언제나 올라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을 서로 말하면 얼마간 마음도 잡힐는지요. 안녕하세요.

- 이효석, 「마음의 공허감」-

\* 혜함: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②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다. 시에서 설정된 ‘먼 곳’은 그리움의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인 반면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이러한 대상이 부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때 대상이 부재한 공간에서 내리고 있는 눈은 ‘먼 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대상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통해 추억에 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된다.

- ① 어느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눈이 ‘흘날리느뇨’라는 것은, 한밤에 내리고 있는 눈을 통하여 그리워하는 대상을 연상하는 것이겠군.
- ② ‘흰 눈이 내려서 ‘입김’이 나오고 ‘절로 가슴이’ 메는 것은, 눈을 통하여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겠군.
- ③ ‘홀로’ 있는 밤에 눈이 ‘뜰’에 내리자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리운 대상이 부재하고 있던 공간에 눈이 내림으로써 대상의 부재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겠군.
- ④ ‘희미한 눈발’로부터 ‘잃어진 추억의 조각’을 생각하고 ‘추회’를 짜늘하게 느끼는 것은, 흘날리는 눈을 통하여 상실한 대상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차단한 의상’을 한 ‘눈’이 쌓이고 눈 위에 ‘슬픔’이 서리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겠군.

2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것은 모란이 피길 인내하는 것에 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긴다는 것은 대상을 상실한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무덤덤 날’에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 것은 화자와 모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④ ‘뻗쳐오르던’ 보람이 ‘무너’진 것은 모란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변화를 드러낸다.
- ⑤ ‘모란이 피기까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고 지는 봄의 양면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2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진단한 타인의 결점이다.
- ② ㉠은 시간이 경과하며 희미해지고 있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다.
- ③ ㉠은 화자의 이상향이 형상화된 대상이고, ㉡은 계획의 실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④ ㉠은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의 문학에 관한 계획이 지닌 결점이다.
- ⑤ ㉠은 화자가 지닌 상처를 치유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지닌 상처를 심화하는 대상이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타인의 소식을 받은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어 자신의 내적 쓸쓸함을 부각하는 말이다.
- ② ㉡: 두 대상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적 고통을 유발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말이다.
- ③ ㉢: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말이다.
- ④ ㉣: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당면한 허무감의 해소를 기대하는 말이다.
- ⑤ ㉤: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화자가 결핍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양상은 작품마다 다르다. (가)는 결핍의 해소에 대한 소망을 모란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때 모란은 삶의 궁극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모란이 개화하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다)는 의지할 곳이 결핍된 인물이 공허감에 빠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다. 결핍된 상태의 인물은 의지를 상실한 채로 삶과 미래의 계획, 고통의 극복에 대해 진단해 보지만 이는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 ① (가)에서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라 표현한 것은, 삶의 궁극적 가치를 모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② (다)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노릇이 됐다’고 표현한 것은, 의지할 곳이 결핍된 인물이 허무감에 휩싸여 삶에 관한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가)에서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지고 ‘섭섭해’ 운다고 표현한 것은,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망이 좌절되고 가치의 모색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④ (다)에서 앞으로의 ‘반생’이 얼마나 ‘생광’이 있겠냐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이 내린 삶에 관한 비판적인 진단을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 ‘지고 말면 그뿐’이라 표현한 것은 궁극적 가치의 모색에 대한 중요성을, (다)에서 ‘문학의 플랜’이 ‘무의미’하다고 표현한 것은 미래의 계획에 관한 비판적인 진단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도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서 마당 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고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늘 없는 표정-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회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 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걸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空轉)같아 보이는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는 생각이 나를 몹시 짓누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의 내부 한쪽에서 솟아나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 라는 집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발전하여, 미리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는 듯이, 나는 이 **양육의 식구들** 생활을 빈집데기에 비유하고 있었다. **빈집데기의 생활**, 아니라면 적어도 방향이 틀린 생활,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는 충동에 이끌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다.

드디어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용조용한 식모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주전자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식모가 문단속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난 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루약은 성공적으로 음료수에 용해되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다소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모두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방의 불도 꺼졌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잠을 이루고 있을까. 나는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방에 불을 켜고 앉아서 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바랐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와서 의자 위에 앉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방마다 불이 켜지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잠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그들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그들은 잠든 채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황 하고 피아노를 울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뛰어나오리라. 물론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고 나를 **나무**란다는 대의명분으로서. 나는 피아노에 생각이 닿은 것이 기뻐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웃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 놓여졌다. 이제 손에 힘만 주면 되었다. 물론 곡도 무엇도 아닌 광폭한 소리만이 이 집을 떠나려 보낼 것이다.

㉦여기서 **공원의 그 젊은이**는 그의 얘기를 그치었다. “그저 덧붙여서 한마디 한다면...” 하고 **그 젊은이**는 잠시 후에 얘기했다. “그날 밤 피아노가 그토록 시끄럽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피아노 앞에서 떼어 내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기침 소리를 들은 듯 하기도 했습니다만.” 피아노 앞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고독함을 느꼈고 그의 방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이 왜 그렇게도 **역세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젊은이**는 나를 뻔히 쳐다보며 물었다.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글쎄요.”라고 나는 대답하며 생각했다. 나로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 김승옥, 「역사(力士)」-

2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에 대한 인물의 심경 변화를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서 동일한 장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특정 집단을 향한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며 그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추리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에게 배치된 '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말이다.
- ② ㉡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관해 스스로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다.
- ③ ㉢는 자신과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편이 틀렸다는 확신이 드러나는 말이다.
- ④ ㉣는 앞의 이야기가 '그 젊은이'의 이야기였음이 드러나는 말이다.
- ⑤ ㉤는 앞서 얘기한 의문을 '나'에게 물어보는 '젊은이'의 말이다.

3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제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은 인물이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은 인물이 반감을 가지는 대상이고, ㉩은 인물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활용했던 시간이다.
- ③ ㉦은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질타를 받은 원인이고, ㉧은 인물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 ④ ㉦은 인물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계기이고, ㉧은 인물이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
- ⑤ ㉨은 인물이 속한 집단이 따르는 규율이고, ㉩은 그 규율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역사(力士)」의 양옥집은 '공원의 젊은이'를 구속하는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는 양옥집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한 후, 사실 양옥집의 질서는 사람들을 예측시키려는 폭력성을 지녔으며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변질된 질서인 것을 깨닫는다. 한편, 그는 양옥집의 질서를 깨버리기 위해 저항하는데, 이는 좌절되며 질서의 폭력성으로 인해 다시 예측되고 만다.

- ① 양옥집 사람들이 '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양옥집의 질서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알 수 있군.
- ② 그가 '양옥의 식구들'의 생활을 '빈껍데기의 생활'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양옥집의 질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그가 '꽝 하고 피아노를 울리면 '그들'이 '나무'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저항에 실패할 것이라 예상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그가 피아노를 쳤지만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던 것에서, 그가 질서를 깨기 위한 저항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군.
- ⑤ 그가 자신을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팔'이 '억세게 느껴졌'던 것을 통하여, 사람을 예측시키려는 질서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 저문 날의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네로구나 내 사정 들어보소  
 내 얼굴 이 거동이 임께서 사랑한 직 한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입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옛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의 지은 죄 산 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라  
 서러워 펼쳐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중략)

초가집 처마 찬 잠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에 걸려 있는 ㉠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산을 오르며 내리며 강을 헤매어 방황하니  
 잠깐 사이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 넘어 늙었어라  
 마음의 먹은 말썸을 실컷 아뢰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다 하여 목마져 매어오니  
 방정맞은 ㉡ 닭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어와 헛이로다 임은 어디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여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르고 있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여지여 낙월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지님, 달은커녕 굶은비나 되소서

- 정철, 「속미인곡」-

(나)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늙연\*한 것이 반갑구나  
 풍상(風霜)을 겪어도 시드는 줄 전혀 없다  
 어찌하여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제1수 - 소나무>

동쪽 울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춘광(春光)을 마다하고 찬 서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제2수 - 국화>

꽃이 수없이 많되 ㉢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을 피여 한 빛인 것이 귀(貴)하기이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는 아니 귀(貴)하고 어이하리

<제3수 - 매화>

백설(白雪)이 잦은 말에 대나무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숲이 푸르구나  
 어찌하여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

<제4수 - 대나무>

- 이신의, 「사우가」-

\* 늙연: 위엄이 있고 당당한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두 대상을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대상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여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긍정적인 처지를 부각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자각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결핍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유배된 작가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에서 드러나는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죄에 관한 인식과 임금을 의미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한편, (나)는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사우’와 그 긍정적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조를 꺾은 속된 선비들과 달리 지조를 지켜 유배 가게 된 자신을 긍정하고자 했다.

- ① (가)의 죄가 ‘산 같이 쌓였으니’ 자신이 ‘사람을 탓하라’라는 화자의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책을 의미하는군.
- ② (나)의 화자가 청고한 ‘내 벗이 다만’ 국화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국화에 대한 화자의 예찬을 의미하는군.
- ③ (가)의 ‘꿈의 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나)의 소나무가 ‘풍상’을 겪어도 ‘시드는 줄’ 없는 것은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하는군.
- ④ (가)의 화자를 따르는 ‘그림자’가 ‘가여운’ 것은 화자를 만날 수 없는 임이 느끼는 처연함을 드러내고, (나)의 매화가 ‘눈 속’에서 ‘꽃’을 피어 ‘한 빛’인 것은 매화의 깨끗함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화자가 ‘낙월’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의 대나무가 ‘온갖 꽃’과 달리 푸른 것은 속된 선비들과 달리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